종립학교를 가다

⑾ 명성 여중·고등학교

‘생명사랑’ 불교 환경교육 발상지 ‘명성’

‘최초의 불교중등교육기관’, ‘불교 여성인재 양성과 청소년 포교의 산실’, ‘불교환경교육의 발상지’….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자리한 명성여자중·고등학교에 따라 다니는 수식어다. 이는 개교 71주년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1930년 조선 불교청년동맹의 발의와 쌍계사, 다보사의 후원으로 설립된 명성학원을 모태로 교육불사를 시작한 명성여중·고는 같은 해 수송동 태고사 경내의 보성중학교 구 교사 일부를 빌려 개교한 후 6·25전쟁으로 폐교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66년 동국학원으로 병합, 교사를 구의동으로 옮기면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현재는 오녹원 이사장 스님의 적극적인 후원아래 졸업생 3만여 명을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 여성교육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부처님은 부다가야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새벽 하늘에 뜬 명성(샛별)을 보는 순간 우주의 큰 진리가 연기(緣起)의 원리임을 깨달았다. 명성이라는 교명은 바로 이 “견명성오도(見明星悟道)”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명성여중·고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배우고 익혀 남을 위한 보살의 이타행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일 아침 10분간 실시되는 선정의 시간은 바로 이같은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선정의 시간은 학생들의 인성형성에 도움을 주고 집중력 강화로 학습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인정받아 명상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서울시내 전체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될 정도로 최고의 인성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합장하기와 같은 불교예절과 지역사회 노인 위문 등 경료효진 예절교육을 통한 바른 인성을 심어주고 있다.

21세기 고도의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여 자율성·창조성·다양성을 추구하며 미래 인재양성하기 위해 명성여중·고는 학교 정보화에 힘써왔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인 1996년 이미 중앙일보 학교정보화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교내 근거리 통신망 설치, 학교 홈페이지 제작, 학생과 교사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화 마인드를 키워왔다. 또한 다가오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점진적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시대회 참여를 권장하고 외국어 교사 국내·외 연수를 강화하는 등 내실있는 영어회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있다.



◇명성여고는 건학이념을 통한 인성교육과 정보화 교육이라는 두가지 축으로 오늘도 불교 여성인재 양성에 매진해 오고 있다. 사진은 불교학생회원들이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다녀온 수련대회 모습.

쌍계사 등 1930년 설립 국제화 대비 영어로 수업

경로효친·예절교육 강조 최초 근대식 법회 봉행도

명성여중·고의 불교활동은 한마디로 청소년 포교의 산실이라 해도 무방하다. 고등학교 불교관련 동아리만도 봉사활동을 주로하는 불교소녀단, 신행과 수행 위주의 불교학생회, 문학과 신문제작의 수십회보반, 청소년단체인 파라미타 등 4개에 이르며 중학교에서도 파라미타 소속 영화반, 한지공예반, 밴드반과 불교걸스카웃 등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불교학생회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법회를 봉행한 곳으로 법회식순, 찬불가 보급 등 불교대중화에 앞장서왔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년째 1년과정 불교교양대학수준의 교리강좌를 매주 실시해 오고 있고, 대학입시 보름전에는 불교학생회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선배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보름입시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더불어 명성은 학교곳곳에서 부처님의 향기를 느낄수 있다. 각 학급과 복도에는 석굴암 본존불, 보건실과 상담실에는 각각 약사여래불과 관세음보살의 사진을 봉안하고 있고, 중학교 법당 앞에는 불교교육자료전시실을 운영, 불구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IMF 당시 불교 어머니회인 수심회가 4천만을 기증해 교문 옆에 명성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상을 봉안하기도 했다.

사람도 70수를 누리면 ‘고희연(古稀宴)을 열어 그 연륜을 축하한다. 하물며 한 세기에 버금가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명성의 발자취를 기리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명성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일제치하에서 오직 무명을 벗어나는 것만이 나라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하신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여성교육의 절실함을 깨닫고 학교를 설립한 그 초발심으로 되돌아가 시대에 부응하는 명문 사립여자고등학교로서 당당히 그 이름을 떨치기 위해 오늘도 부단한 노력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2001 청소년 자율봉사한마당’에 참가한 청소년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배우고 있다.

“몸은 다소 불편하지만 마음은 밝고 씩씩하구나”

2001 청소년한마당 장애인과 함께

“장애인들도 이렇게 수영을 잘 하는지 몰랐어요. 몸은 비롯 불편하지만 마음은 정상인 못지 않게 밝고 씩씩한 것 같아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9일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에서 열린 ‘2001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에 참가한 김영식 군(청담중 2년)은 이번 행사에 참가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는 11일 청소년 자원봉사자 1백여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뒤 자원봉사 한마당 ‘제2차 장애인과 하나되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동대부중 등 서울시내 19개 학교 청소년 2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과의 일일 생활체험을 통해 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부처님의 이타행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날 자원봉사는 3인1조 수영교육, 장애인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 식사보조하기, 불교레크리에이션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고운 마음·소질 계발 힘써”

명성 여고 이원주 교장

명성 여중 안은자 교장





동국학원 초대 법사로 부임해 명성여고 교장으로 재직중인 이원주(사진 위) 교장은 1968년 당시 ‘석가탄신일’, ‘사월초파일’, ‘성탄일’ 등으로 불려지던 4월 8일 석탄일을 ‘부처님 오신날’로 통일하자고 건의, 68년 봉축위원회가 이를 받아드려 대중화에 공헌한 인물이다. 그는 또 불교학생회 지도법사로 활동하면서 법회 식순 제정, 찬불가 보급 등에 앞장서는 등 불교법회 의식의 개발과 보급에도 노력해왔다. 그래서 그는 청소년 포교의 산 증인으로 통한다.

73년 지금의 교훈인 ‘고운 마음 옳은 행동’이라는 교훈을 제정한 이 교장은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기본이 철저하고 인사 잘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명성여중 안은자(사진 아래) 교장은 교내 활동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신도회 부회장, 아태지역 교육연합회 이사, 불교여성개발원 이사,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조직 이사, 서울카운셀러협회 이사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맹렬 여성이다.

35년간 명성여중에서만 근무해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남보다 강한 안 교장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에어로빅대회, 가요대회 개최 등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을 계발해주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명성여중을 공부만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일 수 있는 학교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다.

교법사실에서

김형중·이학주·김남일·안주희 교법사

“교리 쉽고 재밌게 가르쳐”


◇김형중


◇이학주


◇김남일


◇안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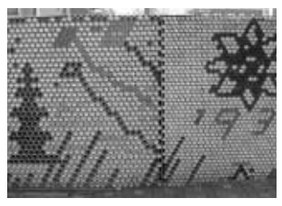
명성여고 김형중 교법사는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등에서 활동하는 시민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로 유명하다. 그는 또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시작한 장본인으로 ‘휴정의 선시연구’로 연변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선시에도 조예가 깊다.

해군법사출신으로 95년 명성여고에 부임한 이학주 교법사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친구같은 선생님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단연 최고의 선생님으로 꼽힌다. 그는 또 국립서울정신병원불자회 지도법사로 활동하는 등 직장직능 불자회 활성화에 관심이 많다.

명성여중 김남일 교법사는 노력하는 법사로 알려져 있다.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취득했고 올해는 상담교사 자격 연수를 다녀왔다.

안주희 명성여중 교법사는 학생들의 근기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화두로 교학시간에 레크리에이션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깡통 3만개 든 ‘환경벽화’ 명물



명성여중·고는 불교환경교육의 발상지로 유명하다. 환경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1980년대말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환경연구에 대한 불교적 이론을 제시하고 환경 살리기, 오염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전교생이 캔 3만개를 1년동안 모아 제작한 환경벽화는 명성의 자랑이다. 1930년부터 시작된 명성의 역사를 사계절로 표현한 환경벽화는 당시 조선, 동아 등 언론기관에 소개되는 등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고, 지금도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실려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10여년 동안 실시해온 환경교육의 결과 학생들은 덜 쓰고 아껴 쓰기,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 교과서 및 교복 물려주기, 호화 사치성 물건 안 사기 등이 생활화되어 있고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효과를 인정받아 2차례나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⑬

• 스트레칭 •

1. 손과 발을 흔들어 몸에 있는 모든 긴장을 푼다.
2. 두 손을 위로 올려 마치 누군가 내 손을 잡아당기듯이 쭉 편다.
3. 쭉 뻗은 두 손을 천천히 흔든후 제자리로 손을 가져온다.



손·발 흔들어 혈액순환 도와



4. 단전에 집중하고 ‘이’ 소리를 내며 다리를 조금 구부린다.
5. 양손을 벌리면서, 한쪽으로 몸을 돌려 천천히 흔든다.
6.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후, ‘뭐’하면서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한다.



우리의 오장기관은 손과 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같이 손과 발을 흔든 스트레칭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다. 또한 숨을 내쉬면서 몸속의 나쁜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도록 한다.